

국세청 국장급 3명 외부인사로 뽑는다

〈감사관·납세자보호관·전산정보관리관〉

개혁안 발표…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세정시스템 투명성 확보 국세행정위 설치

국세청 개혁을 위해 투명한 세정시스템 도입 방안으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

또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국세행정위는 이미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공급자 위주의 국세행정에서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공모를 통해 개방,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국세청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감사관의 경우 외부인사를 영입해 감사·감찰 가능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서비스와 모든 세금 문제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 개설 및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도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방안 중 하나다.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도 나왔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청 조사 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 격리를 강화하고 조사관 낭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때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는 이번 변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도 나왔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할 예정이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연합뉴스

무주택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기로

서민층 세지원 내주 발표

무주택자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등 대규모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책이 내주 발표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중산층에 1조~3조원 정도의 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세 특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도 검토된다. 정부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일부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장기 입원중인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DJ때 전직 대통령들 가장 행복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 병상 찾아 쾌유 기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4일 폐렴으로 33일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전직 대통령의 DJ 문봉은 지난 1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김 전 대통령은 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등 군사정권의 최대 정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지난 96년 12·12 및 5·18과 관련, 사형을 선고받자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이는 대통령 당선 직후인 97년 12월 20일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조치로 이어지는

등 두 사람은 친긴 악연의 고리를 끊고 용서와 회복의 손을 잡았다.

전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IMF 극복과 관련, “지도력에 놀랐다”고 극찬한데 이어 헷갈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20층 VIP 대기실 엘리베이터에 내리자마자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나”며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은 뒤 “자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 휴가 중에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다”며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0년 가까이 초대받아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다”며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0년 가까이 초대받아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현직에서 안 봐주면 전직 (입장)에서는 불쌍한 것이 있지 않느냐”면서 “(김 전 대통령이) 외국 방문 후 꼭 전직 부부를 청와대에 초청, 방문 성과를 설명해주며 만찬을 성대하게 준비해주고 선물도 섭섭지 않게 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은 그런 것을 안했는 데…”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 한 발언을 한 뒤 “이명박 대통령도 전직들의 의견을 잘 들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을 거론, “의료진이 워낙 저명하니 잘 될 것이다. 실력을 발휘해 잘 모셔달라”며 “연세가 많아 시간은 걸리겠지만 틈틈이 완쾌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몇 차례 걸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시설

애국지사 ‘방치’ 부끄럽고 안타깝다

오늘은 64돌 광복절이다. 8·15가 다

가오면 독립유공자를 찾는 발걸음도 찾아진다.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을 훌쩍 넘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지만, 광복절 64돌을 맞는 우리의 현실은 부끄럼 짚어야 없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상당수가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거나 때문이다.

광주지방보훈청 관내에는 독립유공자가 238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41가구(17%)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다. 더욱이 최근 생계비 13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생계 곤란증’도 8가구에 이른다. 상당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기본 생계마저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애국선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정성껏 뒷바라지하는 것은 후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광복절을 맞아 반짝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 특히 1세대 독립유공자들을 행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11명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라도 애국지사와 그 후손들을 꼼꼼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쓸쓸한 노년을 보내도록 방지해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선열들을 보살피는 일은 국민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과거를 잊고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쌀값 대란’ 막을 근본대책 세워야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촌 경제에 비상 등이 켜졌다. 농립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 가격은 작년 수확기 대비 6.0% (80kg당 9688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소비 부진으로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앓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쌀값이 오르기 마련인 ‘단경기(端境期)’에도 이례적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수확기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쌀 농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곧바로 전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한 농촌경제 위기에도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쌀 소비 진작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가공용 쌀을 30% 인하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순천에서는 올해 첫 벼 수확이 시작됐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수확기 쌀값 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박준영지사 지역현안 예산확보 장·차관 잇단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 지역현안사업 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했다.



박 지사는 14일 기획

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이동걸 제2차관·농립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민승규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잇따라 찾았다.

박 지사는 기획재정부에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에 포함된 암해~암태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비 300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비 1천7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견의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박람회 관련 SOC 사업비 8조 3천109억원 중 미확

보된 3조3천409억원 전액을 박람회 전까지 지원하고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관련 현안 사업,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지원비 등 사업비 지원도 촉구했다.

박 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 간척지 양도를 높출 것과 대규모 농업회사원 사업 변경,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에 따른 기본설계비,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비 등도 강조했다.

이밖에 박 지사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연결과 국도 간선기능 확장을 위해 암해~화원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완도 신지~고금 연도교 건설사업비,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등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양시 도내 첫 ‘사업장 금연인증제’

광양시가 전남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장 금연인증제를 시행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보건소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관리 중인 지역 내 30개 사업장에 대해 전 직원이 금연을 할 경우 금연사업장으로 지정해 시 보건소가 자체 제작한 금연표지판을 회사에 게시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금연성공증서와 기념품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등록 사업장인 광양제철 츠는 “사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번 금연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협력사들에도 동참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면집부 2200-672	(F A X 227-0118)
정치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제부 2200-641	체육 2200-679
사회 1부 2200-612	사회 2부 2200-691
(F A X 222-4267)	(F A X 227-9500)
	경영 2부 2200-536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7
	(F A X 227-9500)
	경영 2부 2200-541
	(F A X 227-9500)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국민만평’

- 김종우



진짜 마음 안 통한다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